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 전국 확산세 진정됐지만 산발적 집단감염 등 위험요소 여전 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이번주 세부대책 발표

정부가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요인이 존재해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다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높아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9.30~10.4)가 시작되는 만큼 대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지금까지 유증자점과 클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급주 중 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2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약 27%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6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8월 23일~9월 5일)의 274.7명보다 153.7명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진자 규모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수도권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91.3명으로 이전 2주(208명)와 비교하면 116.7명 줄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같은 기간 66.7명에서 29.7명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의 경우,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어제 16명에 이어 이틀째 20명 이하"라면서 "전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광주 지역 코로나19 지역감염이 3일동안 '0'을 기록한 20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3월 완치 후 4월 다시 확진”...국내 첫 재감염 의심

### 20대 여성 두번째 확진...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영향

홍콩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에 완치된 이후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재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단 한 건뿐이지만 만약 '완치 후 재감염'이 맞다면 백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은 올해 3월 코로나19

에 확진됐던 20대 여성이 4월 초에 다시 확진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조만간 국제 논문 게재될 예정이다.

그간 완치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감염'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방역당국이 재감염 의심 사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재감염 사례는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PCR(유

전자증폭) 검사에서 검출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 바이러스양이 충분히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후 새로 감염된 '재감염'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재감염 사례가 보고돼 연구·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재감염이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각기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됐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국에서도 재감염의 경우 코로나

19의 클레이드(계통)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사례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 당시) 클레이드의 변화 즉, 클레이드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이 언급은 해당 20대 여성이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만약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에 재감염될 수 있다고 하면 코로나19 대응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백신이 개발돼 이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전자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유형'에 따라 매년 접종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 택배·농산물 포장 체험해보니...

### ▶1면에서 계속

지난 19일 찾은 영광군 흥농읍 굴비판매 업체인 '다향굴비'도 그랬다. 추석을 맞아 제주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주문으로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배송 예정 물량만 300박스. 새벽 3시경부터 해동 작업을 거쳐 포장된 후 쌓여진 굴비들이었다.

굴비를 엮어 무게를 잰 뒤 용기에 넣고 얼음 팩을 추가해 포장하면 끝. 간단한데 쉽지 않았다.

이날 작업한 굴비 대부분은 1두름(20마리)에 2.1kg선. 시중에 10만원에 팔린다.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인기있는 선물 아이템이라고 했다.

직원들 설명을 듣고 굴비를 얼음 팩 위에 놓고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모양을 잡은 뒤 랩으로 싸다.

흐트러지지 않게 다시 한번 잘 포장한 뒤 업체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테이프 포장해 운송장을 붙였다.

주문 물량을 제 때 배달하려면 서툰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능숙한 직원들은 1분이 채 안 걸려 상품 1개 포장을 끝냈다. 기자는 굴비 2.1

kg짜리 상품 1개를 포장하는 데 3분이 걸렸다.

이용철 다향굴비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굴비 먹으러 온 관광객도 적어 올해 판매량이 크게 줄었는데, 올해는 '비대면 추석' 때문인지 예년보다 10% 정도 주문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대풍과 집중호우로 과일 값이 비싸진 점도 판매에 영향을 미쳤고, 이른바 '청탁금지법' 완화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지역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영광굴비는 대표적인 고가 명절 선물로 분류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이후 판매량이 절반 가량 줄면서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법 시행 전인 2016년만해도 영광굴비 명절 판매량은 1만 6592t(2550억원)에 달했지만 법 시행 후인 2017년 1만 736t(1650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엔 9660t(1500억원), 지난해는 9964t(1691억원)에 그쳤으며 올해 설 판매량은 3945t(697억원)까지 떨어졌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웬만해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다

### '코로나19' 바늘로 100번 찌러도, 90도 열 가해도 죽지 않아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바이러스(SARS-CoV-2)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에서 바늘로 100번 찌러도, 90도 열을 가해도 죽거나 모양이 파괴되는 것만은 원상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지난 17일 동료 검증 학술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org)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선 코로나바이러스입자가 바늘로 몇차례 찌러면 풍선처럼 터지는지를 실험했다. 그러나 입자는 터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직경 80nm(나노미터·100만분의 1mm)인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를 미세바늘로 끝에서 끝까지 찌렀지만 모양이 찌그러질 뿐 바늘을 뺀면 다시 원상회복했다.

연구진은 100번이나 같은 작업을 했지만 그때마다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는 터지는 것만은 거의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 확진자 10명 중 3명 '깜깜이 환자'

### '감염경로 불분명' 27.4%...최고치 경신후 소폭 하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중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방역에는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1798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493명으로, 27.4%에 달했다. 여전히 10명 중 3명 가까운 환자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이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은 지난달 중순

이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 15일부터 일별로 보면 25.0%→25.4%→26.4%→26.8%→28.1%→27.4% 등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다 이날 소폭 하락했다.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환자는 코로나19 방역상 큰 위험요소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경로 추적과 격리·검사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야 하는데, 경로가 파악되지 않으면 'n차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안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래)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자본감소 및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0원을 금 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4,500주를 강제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를 500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 및 정권자는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자연누리  
전라남도 무안군 문암면 우명길 269  
대표이사 김남금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9월 15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310,000,000원 중 금 11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31,000주에 대하여 11,000주를 회사와 주주들간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매입하여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자본의 200,000,000원)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1.  
주식회사 창호이앤씨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문화길 2  
대표이사 김미선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9월 16일 주주총회 결의로 인하여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연안주유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288  
청산인 김홍석

### 산행안내

9월25일(금)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 계곡 B코스 울산바위 릿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신청 및 개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